추천_ 백화현 관악중학교 교사

봄볕보다 따뜻한 세 권의 책선물

박상률 지음 | 사계절출판사 | 216쪽 | 값 6,500원

긴장감과 호기심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3월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넘실대는 4월이 오면, 우리는 때때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바람 따라 한없이 세상을 자유로이 떠다니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집니다. 《봄바람》의 훈필이, 꽃치, 머시마와 가시나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훈필이는 섬마을에 사는 열세 살 난 소년입니다. 그는 바다 건너 봄바람이 불어올 때면 괜스레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맘 때면 찾아오는 꽃치(꽃망태기를 걸쳐 매고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떠돌아다니는 동냥치)가 기다려지고, 말 한 마디 제대로 붙여보지도 못하는 은주가 유난히 그리워집니다.

이 작품 속에는 섬마을 열세 살짜리 소년의 맑은 꿈과 사랑, 아픔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와 아빠 세대의 향수가 깃들어 있습니다. 불현듯 그리움이 솟구쳐 오르는 4월, 훈훈한 《봄바람》을 따라 시공을 초월한 여행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닌 테송 지음 | 조현실 옮김 | 비룡소 | 108쪽 | 값 6,000원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즐겨 본다? 1999년 프랑스 '올해의 청소년 책'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 작품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마티외와 마린의 싱그럽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뤽스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감정도 영화에 투사되어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서로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상대에게 빠져들고 있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더욱 가슴 졸이고, 눈물짓고, 서로에게서 도망치려고도 합니다. 저자는 섬세한 손길로 이런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그려내고 쓰다듬고 도닥이지요.

청소년뿐 아니라, 점점 감동을 잃어가는 기성 세대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넉넉히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얄팍한 책이지만, 이 작품은 읽는 내내 가슴이 따스해져 오고,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래도록 그 향기가 가시지 않는, 재치 있고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허우아이홍 지음 | 김영수 옮김 | 아이필드 | 144쪽 | 값 9,000원

이 책은 아이필드 필로소피 '참 시리즈' 중 그 첫 번째의 것입니다. 지은이 허후아이홍은 철학박사이며 중국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 책에서 그가 쓰고자 한 것은 일찍이 자신의 어린 딸에게 그가 해준 말들이고, 그 중에서도 많은 문제들은 딸아이가 직접 자신에게 제기한 문제들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딱딱한 철학 이론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 나이 때쯤 흔히 질문 던지는 생명과 존재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서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 대지에 생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나뭇가지마다 연둣빛 움이 터오를 때, 생명과 존재 문제에 대해 슬기로운 철학자와 함께, 한번쯤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인 듯 싶습니다.